전남문화재단, 진흥기금 200억 확보

정기 공모 별도 활성화사업 진행
섬 학교 7곳 문화프로그램 지원
시·군별 특화 콘텐츠 개발 도움

지난해 전남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극단 '아띠'의 '까치와 바보호랑이' 공연 모습.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하 재단) 문화예술 진흥기금 200억 원을 확보, 전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기존 정기공모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재단 출범 이후 추진되는 첫 기금사업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과 시·군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5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말 전남도의 추가경정예산 특별 출연으로 기금 목표액 200억 원을 달성했다. 이 기금은 앞으로 5년간 지역 예술인 창작육성 준비금, 시·군별 특화 문화콘텐츠 등 5개 사업에 연간 20억 규모로 5년 간 지원될 예정이다.

재단은 먼저 6억 2000만원을 들여 코로나19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한다.

매년 지역 예술인들은 정기공모를 통해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신청자 중 절반 가까운 예술인들은 공모에 탈락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단은 최근 3년(2020~2022년) 간 재단의 창작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 400여 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재단은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재단은 또 시·군별로 보유한 문화 자원을 특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예술작품 설치, 축제기획 등 6개 지자체에 최대 1억 5000만 원(총 6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아울러 총 상업비 2억 400만원을 투입,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를 혹은 운영이 종료된 산업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지역과 공간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콘텐츠, 청년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별 30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를 매개로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섬 지역 학교 7곳을 선정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귀촌한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은 또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을 지원한다. 가칭 '남도 원로예술인 스페셜' 무대를 마련, 원로예술인의 공연, 전시, 출판, 발표회 등 공간을 제공한다.

재단은 올해 기금사업 외에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바람의 노래', 남도어린이 페스타 공연을 진행하며 재단기획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생태계 보전 등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하는 문화 예술 기획자 지원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려인 문화예술 상징 '고려극장' 다채롭게 조명

고려인문화관 개관 1주년 기념
'동북선' '장화홍련' 표지 전시

연극 '춘향전'에서 배우들이 열연을 펼치고 있는 장면. 〈고려인문화관 제공〉

광주 월곡 고려인문화관(관장 김병학)은 고려인의 강제이주와 항일운동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곳은 지난해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맞춰 문을 열었으며, 고려인들이 구소련 지역에서 남긴 다양한 자료와 컬렉션이 있다.

고려인문화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고려극장 창립 90주년 기획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기획전은 고려인 문화예술의 상징인 고려극장을 다채롭게 조명하는 자리다.

지난 193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단된 세계 최초의 전문 연극극장으로, 고려인을 대표하는 모국어 문화예술기관이다. 이 극장은 고려인의 다른 문화예술기관과 달리 강제 이주의 시련 속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희곡, 연기, 무대장치, 무대음악, 전통가요와 가무 등이 총망라된 집적기관으로 모국어 보존과 전통 계승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소련 전역에 흩어진 고려인마을을 찾아다니며 걸출한 입담과 흥겨운 가무로 지친 동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이번 전시장에서는 연극 '춘향전'에서 이도령 역을 맡는 리창송 배우가 사령에 의해 끌려가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비롯해 고려극장 음악 희극 '농민유희'의 한 장면, 연극 '오델로'(셰익스피어 원작)에서 주인공 오델로 역을 맡아 열연하는 김진 배우 등의 사진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김해운 희곡 '동북선' 표지와 희곡 '장화홍련' 표지도 전시돼 있다. 특히 '장화 홍련'은 사할린 조선 극장에서 대표작으로 공연돼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한편 김병학 관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디아스포라 고려인이 이국땅에서 근 한 세기 동안 쌓아 올린 민족문화예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고려인의 잊혀진 역사와 문화예술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토요상설공연 문명자 가야금병창 '수궁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28일

문명자 보유자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진행하는 이번 주 토요상설공연은 문명자 가야금병창 '수궁가' 무대로 꾸며진다. 28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

국악인 김산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김서윤(광주시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이수자)과 김혜인(광주시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이수자)의 단가 '죽장망혜'로 문을 열고 문명자(광주시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의 '수궁가' 전 대목이 가야금병창으로 펼쳐진다.

특히 문 보유자는 '수궁가'의 초입 '용왕이 병이 들어 탄식하는 대목'부터 '토끼가 수궁에서 살아나와 좋아라고 노는 대목'까지 가야금병창으로 들려주며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 김청만이 함께 한다.

문 보유자는 제19회 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 부문 장원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별밭가얏고예술단,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은 전통문화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하며 오후 1시 30분부터 민속놀이와 한복체험이 펼쳐진다. 6월 4일 토요상설공연은 4일 '윤현명 피리산조, 조아람 판소리'가 예정돼 있다. 문의 062-670-8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ACC 레지던시' 참여자 공모

5개 분야…6월 13일까지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이 'ACC 레지던시' 참여자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외 창·제작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하며 레지던시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모집 부문은 아트&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시각예술(비주얼아트), 디자인, 공연(시어터), 문자연구(다이얼로그) 등 총 다섯 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국내외 모두 27명(팀)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ACC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최종 선발된 창·제작자와 연구자는 창·제작 스튜디오의 기계조형을 비롯해 디지털 에이브이(A/V) 등 ACC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5개월간 작업공간과 숙소, 월 최대 200만원의 창작활동비, 프로젝트 제작비를 각각 지원 받으며 강연, 토론회등 창작 지원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5개월간 활동 결과물은 오는 12월 전시·공연·학술행사 등의 형태로 선보인다.

지원은 ACC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미술상' 창작지원 대상작가 공모

운영위, 30일까지 접수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오건탁)가 2022년도 창작지원 대상작가를 공모한다. 지난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8회째인 '광주미술상'은 역량 있는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광주·전남 원로·중견 미술인들이 수여하는 상이다.

공모 대상은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둔 만 2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미술인들이다. 지역연고 기준은 광주·전남 출생이거나, 광주·전남 소재대학 미술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타지 출신일 경우 광주·전남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활동한 작가이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며, 응모원서와 포트폴리오, 주민등록초본을 위원회 사무국(jg0422@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에 통과하면 1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진행하며 2차 본심사에서 후보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1인을 뽑는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000만원 이상의 창작지원금과 전시공간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작가와의 대화의 장도 함께 지원된다. 또한 2위, 3위의 작가들도 특별상으로 2인전을 열 수 있도록 500만원을 지원한다.

전시는 11월 하순부터 12월 중순 사이 개최하며 전시기간 중 '작가와의 만남' 개최, 소통의 기회도 마련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